

시민 모금으로 탄소배출권 소각...

착한탄소기금, 배출권 1859톤 매입 후 폐기 ... 2015년부터 본격시행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관련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 없애는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착한탄소기금 준비위원회는 4월3일 서울 신문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1차 탄소배출권 소각행사를 열고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들인 1859톤의 온실가스 배출권 소각 증서를 기금 기부자 30여명에게 전달했다.



소각된 배출권은 지역난방공사가 2009년~2011년 10월 대구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받은 것이다.

착한탄소기금은 2012년 10월까지 시민들로부터 기금을 모아 361만원(톤당 1944.7원)을 난방공사에 지급하고 배출권을 사들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소각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해 유럽 등에서 이미 몇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온실가스를 할당량 미만으로 배출한 관련기업은 여유분 만큼의 배출권을 다른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업이 배출권을 사들이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낼 권리를 갖지만, 시민들이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세계에서 해당방식으로 소각된 배출권은 12만1234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1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 ETS)가 도입돼 관련기업 사이의 배출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배출권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뺀 328만원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나무심기 사업에 기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3>